

# 말씀의 샘

##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 < 고린도후서 12:7~10>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만의 시작인 사단에게서 그 교만의 유전자들을 근본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구절을 영어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Isaiah 13 You said in your heart,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sit enthroned on the mount of assembly, on the utmost heights of the sacred mountain 14 I will ascend above the top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5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I will' 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이는 것,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존재는 절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들어온 사단의 이 꾀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스스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스스로 살려고 도전한 교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 모두는 이미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말을 못하는 어릴 때부터 말부터 배우기전부터 자기 스스로 하려고 몸부림을칩니다. 할 수 있는데 하려고 울며 때를 씁니다. 그렇게 성장한 어른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며 자립을 위해 힘씁니다.

이러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해가는 과정에서 자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경험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실제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할 수 없는 자가 주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눈먼 자, 귀머거리, 절름발이, 각색병자, 귀신들린 자, 문둥병자, 아들 잃은 과부... 혼자사는 할 수 없는 자는 다 만나주셨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십계명을 세분화시켜 613개 조항이나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병자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할 수 없는 자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무능하고 불행한 케이스는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이 사람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죽기직전이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모두가 포기하고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세 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계시도 많고, 사역도 왕성하게 뻗어나가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그를 겸손하고 연약하게 만드시려는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약해져야 더 강하게 마음껏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둘째, 무능함을 느낄 때가 가장 능력 있을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은 갈릴리바다에서 시작되고 갈릴리 바다에서 회복됩니다. 가장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역시 갈릴리바다였는데 둘 다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을 때,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은혜를 경험

했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신앙도, 고기잡이도 모두 실패했을 때,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 역사상 가장 능력 있을 때는 40세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양치는 모세입니다.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때였지만, 가장 하나님을 만난 능력의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떨거나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사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모세에게 또 요구 하시는게 있습니다. '네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약해져있는 모세에게 더 약해지고 겸손해지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손에 든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가진 지팡이마저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99%까지 약해졌지만 남은 1%마저 내려 놓고 약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전차부대를 무참히 진멸하고, 인류역사상 가장 강력한 출애굽사건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사용하십니다. 약할 때가 강함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이 안되고, 힘든 것을 때론 침묵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시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결국은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무능함이 주는 은혜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내가 약해질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6년 12월 4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12. 18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1:12~16 / 누가복음 1:26~38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주님은 믿음을 밝고 오십니다.(뜻)**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